

# 인종평등 선교주일

설교자료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 인종평등 선교주일

설교자료

## 와 보라

본 설교자료는 요한복음 1:35-51을 본문으로 한 “와 보라”라는 제목의 예배자료 및 헌금 전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주님께 어디서 머무시는지 묻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은 “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루를 보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단락에서 안드레는 그의 형제를 찾아가 그가 메시아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도 와서 직접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안드레/베드로와 같은 동네 출신인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찾아내시고 또한 다른 이들을 통해 그분과의 관계성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나dana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나사

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친구 빌립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신실한 삶과 지도력 또 그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가 투신했던 운동은, “셀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혹은 “몽고메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킹 목사의 사역도 “와서 직접 보라”는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적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 했던 교회들이 과거에 있었고, 또 현재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흑인민권운동은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교회와 종교 단체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 인종평등 선교주일

설교자료

로 복음의 메시지를 읽을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나다나엘들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버밍엄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 교회가 지녔던 희생의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그 본래 진정성을 잃고, 수백만의 신뢰를 잃게 되며, 어떠한 의미도 주지 못한 채 20세기와 아무 상관 없는 사교 동아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실망하다 못해 이제는 혐오감을 느끼는 젊은이들을 매일 만납니다.”

이 편지는 60년 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에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세속화되는 사회에서 이러한 태도를 심심치 않게 발견합니다. 교회에서 정죄나 위선을 경험한 이들은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라고 먼지를 털어내듯 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하는 많은 이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어디에 머무시는지

헛갈려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교회 건물 안에 계실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종평등선교주일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저 교회 건물의 사면 벽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전 세계적 전염병의 유행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들이 대면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문을 닫아 두어야 하는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마음과 생각과 영을 변화시키는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들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인종평등선교주일 특별헌금은 다른 연합감리교회들이 드리는 예물과 합쳐져서 하나님의 소원을 드러내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데 쓰입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메이플 파크 및 잉글우드-러스트 두 연합감리교회는 함께 협력하여 소년원 수감을 대체하는 지역 기반 대안적 교정 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멘토링과 지도력 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지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 인종평등 선교주일

## 설교자료

역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그들과 치유적 관계를 구축하였고 이는 재범률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시카고 지역 청소년들의 가정과 여러 공원과 정원에 머물고 계십니다.

뉴욕주 버펄로의 링컨 메모리얼 교회가 운영하는 “다윗의 아들들(The Sons of David)”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과외 수업과 방과 후 농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춘기 직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동들과 학교를 중퇴한 소년들을 위한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는 참여한 학생들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예수님은 도시들의 중심부에 머물고 계십니다.

예술, 문화, 및 음악 공간으로 유명한 워싱턴 D.C.의 비컨 센터 내에는 저렴한 최신식 주택, 체육관, 강의실, 식료품 창고, 이민 클리닉 및 중소기업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머슨 비컨 센터(Emerson Beacon of Light Center)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전 세계의 지역사회들에 머물러 계십니다. 필리핀에서는 약물 중독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단체가 협력하여 특히 마닐라 북부 공동묘지(North Manila Cemetery) 지역 가정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콩고 공화국에서는 연합감리교회들이 초교파적 파트너들과 연합하여 수감 중인 아동과 청소년에게 목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필요를 거룩하게 취급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묘막측하게 지음 받은 이들로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혼자이거나 잊힌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와서 직접 보도록 어떻게 그들을 초대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현재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형성된 관계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버밍엄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가 매우 큰 능력을 갖췄던 때가 있었습



# 인종평등 선교주일

설교자료

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 겪는 것을 기뻐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단지 대중적 의견에 대한 생각이 나 원리를 기록했던 온도계 같은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사회의 관습을 변혁시켰던 온도 조절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아파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의 유행과 시민 봉기 또 정치적 혼란으로 얼룩진 어려운 한 해를 견뎌왔습니다. 이는 게다가 질병,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재정 불안정 및 교육적 문제들과 같은 개인적 위기와 트라우마에 위에 더해진 것들이었습니다.

가치와 태도도 바뀌어, 한때는 용납되지 않았던 것들이 때때로 정상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 어떻게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 우리의 행동으로 어떻게 예수님 사랑, 의, 그리고 은혜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 우리의 행동과 증언으로 어떻게 소망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당파적 분열

의 불협화음 가운데 실종된 이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할 수 있을까요?

지역 사회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우리를 드러낼 때, 억압된 이들을 대변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외롭거나 아픈 이들의 이야기에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바꾸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인종평등선교주일 선교헌금을 통해, 교회의 행동으로 관계를 구축하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이 와서 보도록 부르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통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맡기에 합당한 이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정의,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위대한 도구들로 빚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